

同居戒辭에 나타난 家庭和睦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Family Harmony Through the Dong Gu Gae Sa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洪 달아기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ersity

Instructor : Dal A Gi, Hong

본 연구는 粟谷이 실제 자신의 가정화목을 위해서 함께 살며 서로 지켜야 할 경계의 글을 고찰한 것이다. 우리는 가족이 화목하고 가문이 번창하는 것을 최대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화목한 가정을 바라지만 실제로 가정화목을 위해 구체적 내용을 정해놓고 실천하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반복교육이란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의 현대적 의미는 어떠한가를 분석했다.

전체적인 내용은 효도·공경·정성·사랑을 바탕으로 한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남을 이해하려고 하며 나를 극복해 나가는 克己의 정신이 강조되었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화목의 윤리를 옛 모습 그대로 오늘의 가정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화목을 위한 敬과 誠의 사상에 의해 가족성원간에 자연히 형성되는 애정은 중요한 유대와 화목의 구실을 할 것이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利己性을 자제하고 粟谷과 같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이 유년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I. 서 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의 화목은 사회질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유달리 심한 정신적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결국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파생된 격동적인 과도기적 현상이며, 노인문제니 청소년 문제니 혹은 전래의 가족제도의 와해니 하는 등의 문제들이 사회적인 難題들로써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

리의 현실이다(尹明老, 1985 : 128).

이와같은 시점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더욱 중시되고 있지만, 발전이라는 현대사회의 긍정적인 측면 뒤에 가정이란 집단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요소가 산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한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하여 사회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정이 안고 있는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인 가족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고 함께 살면서 서로를 경계하는 글을 지어 실제로 가족과 친척들에게 교육시킨 栗谷의 『同居戒辭』를 고찰하고자 한다.

栗谷은 가정이 화목하면 그 기운이 사회나 국가의 평안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栗谷은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는 근본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일러 말한 것이요,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는 법도가 있는데 그 집을 말한 것이다. 근본이 단정하려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해야 하며, 법도는 반드시 오행해야만 하는데 법도가 오행하면 어버이를 화목하게 한다(栗谷全書, 卷 23, 聖學輯要 5, 正家, 總論正家).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修己(자신의 몸을 닦는 일)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家道(가정에서의 도리)가 오행해야만 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을 받고 학문을 하는 것도 바로 일상생활을 통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하여 그의 家庭教育觀은 일상생활을 오행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修己와 오행한 가정의 법도가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며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인데 법도라는 것은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규범은 한 개인이 성장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제구실을 다하면서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다(이길표, 1994 : 2).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간의 화목이 행복의 어느 조건보다도 우위임을 잘 알지만 화목을 위해서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잊고 생활하는 경향이 있다. 栗谷은 『同居戒辭』에서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가족원이 지녀야 할 규범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栗谷이 『同居戒辭』에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 어떤 것을 경계하고 강조했는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올바른 가족간의 질서는 무엇인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족에게 있어서 개인은 무엇인가? 등을 밝혀 사회의

기초집단인 가족이 화목한 건강 가정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가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栗谷이 『同居戒辭』를 저술하게 된 동기를 고찰한다.

둘째 栗谷이 『同居戒辭』를 저술하게 된 가정적 배경을 고찰한다.

셋째 『同居戒辭』의 내용을 분석하여 현대적 의미를 논한다.

II. 『동거계사』의 저술배경

1. 『동거계사』의 저술동기

『同居戒辭』는 栗谷이 42세(1577)에 저술한 것으로, 海州 石潭에 집을 짓고 일가친척을 모두 모아 함께 살아가면서 家庭의 和樂과 秩序를 위하여 지은 글로써 고어체 한글로 씌어졌는데 지금까지는 한글 본이 失傳되어 알려지지 않았고 宋時烈이 漢文으로 번역한 것이 <尤庵全集>에 전해져 왔으며, <栗谷全書> 卷 16 雜著 3에 실려 있는 한문 번역 본을 참고로 했었다. 그런데 1976년 12월 1일 <韓國文學>(第 4 卷 通卷 28 號 : 243~251)에서 原典(한글본)을 발굴하여 失傳 400년만에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同居戒辭』에 대한 자세한 연구(김익수, 1979)는 없는 바 본 연구에서 원본을 고찰하게 됨은 연구자로서 뜻깊은 일이다.

특히 『同居戒辭』는 栗谷이 실제로 자신의 가정을 위해 저술한 것이며, 어린 자식들이나 조카들까지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쓰여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同居戒辭』에 의하면 栗谷은 매일 초하루에 자제들을 거느리고 사당에 참배하고 계사가 끝나면 모두 정침에 모였는데 先生은 동편에 앉고 庶母 權氏와 兄嫂 郭氏 그리고 栗谷의 부인들은 서편에 앉아서 아들, 조카, 며느리, 딸들의 절을 받았다. 자제 중의 한 사람에게 명하여 『同居戒辭』를 읽게 한 뒤에 하인들과 계집종들은 뜰 아래 갈라서서 절하게 하고 訓戒하는 것으로써 禮規로 삼았다.

『同居戒辭』의 著述動機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형제는 애초에 父母 한 몸으로 하여 나뉜 것이니, 이는 한 몸과 다름이 없다. 마땅히 서로 친애하여 조금도 내 것, 남의 것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옛사람 중 9族이 등거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큰 형 또한 일찍 돌아가셨음에 오직 우리 살아남은 이들이 힘써 서로 우애하고 재산을 같이하며 살며, 서로 흠어지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만약 흠어져 산다면 조금도 사는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同居의 방침을 만들어 비록 마을을 달리하여 떨어져 살다가도 와서 一家가 한데 모여 和樂하여 세월을 보내니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이에 마음가짐과 행동 방법을 간략하게 적어 매월 초하루마다 서로 모여 읽어서 다 듣고 알게 하려 한다(栗谷全書, 卷 16, 雜著 3, 『同居戒辭』).

『同居戒辭』의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栗谷은 9세 때 읽은 二倫行實圖에서 당나라의 張公藝란 사람이 9대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읽고 크게 감동하였으며 그 뒤 九世同居를 흠모하여 형제들이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림(兄弟奉父母同居之圖)을 그려 붙여놓고 보곤 했다고 한다(栗谷全書, 卷 33, 年譜上).

이것이 同居의 동기가 되었으며, 어려서부터 家族간의 同居和樂을 가슴속에 간직했다가 42세가 되던 해 정월에야 그 同居의 꿈을 실현한 것이다. 또 다른 同居의 동기는 집안의 家長이 일찍 돌아가셨음이다. 따라서 栗谷은 세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家長으로서의 구실을 해야 될 형편이었다(이은상, 1984 : 60) 간접적인 동기로서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겠다. 그 때의 政界란 당파의 분열과 시비로 어수선할 때였으므로, 그는 稱病 혹은 기타 이유를 들어 관직을 마다하고 栗谷 혹은 海州 石潭으로 퇴거하여 學徒들과 학문을 論하기를 즐기고 또한 자신의 일가 친척들에게도 그의 학문을 실천코자 하는 뜻이 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이병도, 1984 : 32)

2. 栗谷의 家庭環境

한 인간이 어떤 家庭環境에서 성장했느냐는 그가

어떤 사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영향을 준다. 즉 家庭環境의 영향력은 어느 다른 집단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栗谷의 가족구성원은 어떠한 것이고 그 상호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栗谷에게 특히 영향을 준 家族들과 그들의 生涯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栗谷에게 영향을 준 家族

栗谷의 母親 師任堂과 外祖母 李氏부인은 가족 중에서도 특히 栗谷에게 미친 영향이 컸다. 그러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가족상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栗谷의 父親은 德水 李氏家의 12世 元秀公으로 燕山君 7년(1501)에 태어났다. 栗谷의 祖父가 1506년 24세의 나이로 별세하자, 元秀公은 홀어머니 洪氏 밑에서 자랐다.

6세 때 父親을 잃고 獨子로 자랐기 때문에 儒學을 배우고자 하였으나 학문에 깊이 들어갈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22세에 平山 申氏 命和의 딸(師任堂)에게 장가들어 학문을 그 부인에게 듣고 배웠다고 한다.

栗谷의 母親(師任堂)은 고려조의 충신인 申崇謙의 18대손인 申命和의 둘째딸로 태어났다. 훌륭한 가문에서 어려서부터 독서를 많이 했고 예술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師任堂의 父親인 命和公은 41세에 진사시험에 합격했지만 官職을 사양하고 오로지 학문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의 학문이 사임당에게 미친 영향은 크다.

사임당은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서 父母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부모는 그를 出嫁시켜 놓고도 바로 시택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혼인하던 해 친정아버지가 47세로 돌아가셨다. 시택에도 *母 혼자 뿐이었지만 사임당은 친정에서 삼년상을 마친 후 서울 *母께 新婦禮를 드렸다. 그후 파주, 강릉을 옮겨 다니다가 38세에 서울에 왔으며(栗谷은 당시 6세였음), 이곳에서 10년을 살다가 48세(栗谷 16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栗谷의 外曾祖父는 龍仁 李氏로 이름은 思濶이며, 栗谷의 外曾祖母는 강릉사람으로 참판벼슬을 지낸 崔氏의 둘째 딸이다. 李思濶과 崔氏부인 사이에는 무남독녀 李氏(栗谷의 外祖母)가 태어났으며 李氏는 外祖父(최참판)에게 글을 배웠고, 학문도 깊었으며

나라에서 烈女旌門을 세워주었을 만큼 德이 있는 분이다. 李思溫(사임당의 外祖父)이 강릉 북평에 자리 잡은 것은 李氏부인이 처녀시절이었는데 그곳이 지금의 烏竹軒이다. 李氏부인은 申命和公에게 출가하여 사임당을 낳았다. 李氏부인은 혼인직후 시댁으로 왔으나, 강릉으로 내려가서 계속 그곳에서 살았고 딸만 다섯을 낳았다.

栗谷의 기록에 의하면 “外祖父母가 16년 동안이나 서로 떨어져 살았다”라고 하니, 다섯 딸의 교육은 어머니 李氏부인의 가르침 아래서 자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李氏부인은 90년을 사는 동안 부모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둘째딸 사임당까지 먼저 보내는 슬픔을 겪었다. 이에 李氏부인은 특히 먼저간 딸의 아들인 栗谷에 대한 情이 각별했을 것이고, 栗谷 또한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外家에서 자란 까닭에 外祖母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깊었다. 이렇게 볼 때 栗谷은 外祖母의 사랑과 가르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栗谷의 형제 자매는 四男 三女로 다음과 같다. 큰 형님(璿)은 41세(1565)에 늦게 진사시험에 합격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누이(梅窓)는 별명이 작은 師任堂으로 손매무새나 예술가적 재능, 지성 등이 어머니 師任堂을 닮았다고 한다. 둘째 형님(璿)과 둘째 누이와 셋째 누이 동생은 전혀 기록이 없는 가운데서도 定齊(둘째형의 號)의 글 한 篇이 끼친 바 있어 그의 學識과 人品을 헤아리게 할 뿐이다.

막내 아우(瑀)는 栗谷과 知己라고 할만큼 友愛가 돈독하였으며 26세에 생원시험에 합격하여 경기전 참봉에 임명되었으며, 그 뒤 여러 고을 현감을 지나 벼슬은 비록 軍資監正에 그쳤으나, 壬亂時 民心을 모아 항전으로 고을을 지켰던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적도 있다.

2) 栗谷의 가족상황

栗谷의 생애 가운데에 큰 사건(生, 死, 婚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栗谷이 6세때 아우(瑀)가 태어났으며, 16세에는 모친(師任堂)이 別世하였다. 栗谷은 母親 死後에 三年의 墓幕生活을 끝내고, 19세에 금강산에 입산하게 되는데 그 入山動機²⁾를 대개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 그 중 하나가 庶母와의 家庭不和說인데, 이것은 朴

世采가 <南溪集>에서 밝히고 있다. 栗谷이 慈母의 喪을 당하여 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있던 차에 성질이 좋지 못한 庶母가 있어 때때로 가정의 풍파를 일으키었는데, 栗谷은 여러 차례 간하여 보았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家庭의 樂을 잃고 마침내 父親에게 고하고 강릉 外祖母에게 갔다가 그 길로 입산했다(이병도, 1984 : 27)고 하는 기록을 근거로 하면 栗谷이 19세때 父親 李元秀公은 재취부인을 얻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東溪漫錄』(이은상, 1984 : 54)에 의하면 師任堂은 夫君 李元秀公에게 평소 애 자기 죽고 난 뒤에 다시 재혼하지 말라는 것으로써 서로 문답까지 했다 한다. 따라서 師任堂이 살아있을 때는 後妻를 들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겠다.

栗谷은 22세 9월에 星州牧使 盧慶麟의 딸과 혼인을 하며, 26세 5월(母親喪後 10年)에 父親喪을 당하여 삼년간 墓幕生活을 했다. 33세 봄에는 장인(盧慶麟)이 別世하였고, 34세 10월에는 外祖母(李氏부인)가 세상을 떠났다.

栗谷은 外祖母에 대한 각별한 情으로 말미암아 外祖母의 別世는 栗谷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栗谷의 안타까운 마음은 “外祖母 李氏를 제사하는 글”(栗谷全書, 卷 14, 祭文)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栗谷이 35세이 되던 해에 집안의 어른인 큰 형님(璿)이 別世하였다. 이 해 10월에는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처가(海州)에 와서 栗谷을 따르는 學徒들과 石潭을 유람하고 학문을 강론하다가 그곳에 은병정사를 지어 생활할 계획을 세웠다.

같은 해 12월(35세)에는 退溪先生의 訃音을 듣고 통곡을 하며 흰 띠를 매고 방바닥에 기거하면서 애도의 詩를 지었다. 栗谷은 마음으로 의지해왔던 外祖母와 큰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또한 학문에 있어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退溪의 訃音까지 접하니 새가

주) ① 母喪에서 얻은 충격과 더불어 佛敎에 대한 관심과,

② 3년간의 墓幕生活에서 얻은 禪의 심경에 몰두하고 싶은 마음과,

③ 庶母로 인한 가정불화이다.

날개를 잃은 것과 같았을 것이다.

栗谷 자신의 가족상황을 보면 부인 盧氏와 소실 金氏와 李氏를 두었는데 盧氏부인은 일찍 딸을 하나 낳았으나 어려서 죽고 그 뒤 자녀를 낳지 못했다. 그러므로 栗谷의 자녀 2男 1女는 모두 소실의 몸에서 난 庶子들이다. 이로써 보면 양반으로서 소실을 갖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栗谷은 자식을 얻기 위해 소실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겠다. 즉 첫번째 소실인 金氏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두번째 李氏를 맞아 庶子인 長男(景臨)을 낳은 것이다(金氏가 또 다른 庶子 景鼎을 낳은 일은 훨씬 후에 일이다).

41세 10월에는 海州 石潭으로 돌아가 聽溪堂을 짓고, 42세 정월에는 一家親戚들을 모두 오게 하여 함께 살았는데, 이 때 栗谷은 家庭의 和平과 단란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同居戒辭』(함께 살면서 서로를 경계하는 글)를 지어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이때 栗谷의 집안은 큰 형님이 일찍 죽고 그 식구들이 충청도 회덕에 살고 있었으므로, 큰 형수(郭氏)를 請하여 宗家の 神主를 모시도록 하여 兄弟子姪과 親戚으로서 가난한 의탁할 데 없는 이들을 모두 함께 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식솔이 모두 1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栗谷이 44세 되던 해 즉 長男을 얻은지 5년 뒤 次男(景鼎)이 태어났다. 이리하여 栗谷이 49세로 別世하던 해 두 아들의 나이는 長男이 11세, 次男이 6세의 어린아이들이었다.

3. 栗谷의 시대적 배경

한 사람이 살았던 시대란 그 사상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栗谷이 살았던 시대(1536~1584)는 中宗 31년(1536)에서 仁宗, 明宗을 거쳐서 宣祖 17년(1584)까지 조선시대의 중엽 16세기에 해당한다.

이때의 조선 사회는 태조의 창업 이래 약 20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배계급 사이에 일종의 타성이 생겨 사회의 기강의 해이해졌으며 정치가 문란했던 시기이다. 특히 연산의 폐해가 심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栗谷이 태어난 中宗 31년(1536)에 이르러서는 부패된 정치에서 비롯되는 해독이 견잡을 수 없는 퍼져서 民力이 극

도로 쇠약해져 있었다(黃俊淵, 1989 : 65~66). 栗谷은 그의 저술(萬言封事, 울곡전서 : 109, 東湖問答 : 326) 들을 통해 백성과 나라의 운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도덕적인 자각심과 道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III. 『同居戒辭』의 내용분석과 현대적 의미

『同居戒辭』는 머리말과 여덟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저술동기는 앞에서 밝혔으며 여덟개 조항은 栗谷의 그 당시 가족상황을 고려하여 저술한 것으로 栗谷의 가정 뿐 아니라 一家親戚이 모두 모여 살게 되었기에 大家族의 秩序와 和平하게 家庭분위기를 이끌어 가기 위해 서로 각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規範을 적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글본 「동거계수」의 기본 여덟개 조항(한국문학, 제 4 권〈통권 28호〉, 1976, 12 : 243~251)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제사규범

栗谷은 제사는 먼저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운 것을 주로 하며, 번거롭게 여러번 자주 지내는 것을 禮로 삼지 말아야 한다(울곡전서 I 권 23, 聖學輯要 5 : 506)고 하였다. 또한 그의 실생활에서 주장하기를

- 부모께 효도하기는 행실의 으뜸이로되 안계신 부모는 효도할 길이 없으니 다만 정성으로 제사를 모셔 아무 것을 얻어도 제사의 쓸일을 헤아려 함부로 쓰지 말고, 제사를 모실때 마음을 가장 정성되어 먹고 마음을 좋게 갖어 어느모로나 선령이 흠향하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여 형식적인 것 보다는 참된 정성을 강조했다. 정성이란 반드시 제사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성(성실)스러움은 곧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통사회나 현대사회를 막론하고 중요하다.

2. 孝의 기본

- 젊은 사람이 아버지 섬기는 것은 아버이 향한 마음을 옛 성인들의 가르침대로 하여야 어느

모로나 효도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聖學輯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효도에는 정밀한 것도 있고 간략한 것도 있다. 부모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또 시원하게 해드리며, 잠자리를 돌보아 드리고,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는 일은 효도의 간략한 것이고,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는 일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은 효도의 정밀한 것이다(栗谷全書, 卷 23, 聖學輯要 5, 正家, 孝敬章).

이와같이 부모를 섬기는 데에는 정밀한 것과 간략한 것, 모두 소홀함이 없어야 진정한 孝라고 할 수 있다.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誠實을 의미한다. 栗谷은 가정을 바르게 하는 첫째 조건으로 孝敬을 들고 있다. 父母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함은 모든 社會의 자연스러운 倫理이지만 단순한 孝와 敬이 아니라 진실됨(誠實)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특히 부모에 대한 공경의 禮를 엄격히 하므로써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연결되어 확대된다고 본다.

栗谷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지극한 孝는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당하면 마땅히 익히도록 諫해야 하며 부모의 뜻을 먼저 알고 부모의 뜻을 이어 받아서 부모를 道에 깨우쳐 드려야 된다고 하였다.

3. 宗婦像과 자녀교육

- 큰 아주머님은 우리 집안의 맏이시고, 제사 받드시는 사람이시니 집안의 으뜸이라 아래사람이 각별히 공경하여 마치 아버지 모시듯 하고 가족의 서로 마음을 좋으나 싫으나 언짢게 여기는 마음없이 낮빛을 온화히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여 서로 가르칠 일이나, 조금도 닦하지 말고, 서로 잘못됐다고 논란하지 말 것이며 남의 말을 끝이 듣지 말 것이다. 혹 거짓말하여 서로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자제와 종이면 때려서 가르치고, 첩이면 엄히 훈계하여 고쳐 지지 않거든 내보낼 것이다.

經國大典에 여자의 主祀를 배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중기까지 宗法이 행해지지 않았으며 士大夫家일지라도 남자가 없으면 妻 또는 여자가 제사를 主祀하였는데(최재석, 1989 : 707, 명조실록 卷 17) 栗谷의 가정도 宗婦가 집안일을 맡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1577) 栗谷의 가정은 일찍이 父母님을 여의었고, 또 큰 형님마저 돌아가시니, 宗婦인 큰 형수를 집안의 어른으로 하여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따라서 모든 가족들에게 큰 형수님 모시기를 어머니 모시듯 해야 한다고 했으며, 모든 家事를 주관하게 한 것은 집안의 위계질서를 확실하게 하여 어른에 대한 공경을 가르친 것이다. 집안의 질서는 나아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의 윤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또 자녀의 잘못을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한 것은 한번 나쁜 습관이 들면 고치기 어려우므로 부모가 고쳐 줘야 함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적기 때문에 자칫 사랑함만 있고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교육이 부재하기 쉬운데 이는 부모의 소극적 교육 태도이다.

4. 가정경영 : 공동 소유, 공동 소비

- 한 집안 사람이 동거하는데 각각 사사로운 세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요, 부득이 사사로이 쓸 데가 있으면 주관하는 사람이 나누는 것으로 하고, 혼자만 갖고자 하는 마음이란 일체 없애서 씬에 적당하게 할 뿐인 것으로 길이 오래 같이 살기를 원한다.

사사로운 재물이 필요하면 반드시 그 집의 家長(주관자)을 따를 것이며, 아랫사람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말로 조용히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경솔하게 때리지 말고 家長에게 말하여 벌을 주게 한다는 것은 어른에 대한 조심스런 태도이다. 가정은 일종의 조그만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그가 살고 있는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번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며 이는 나아가 현대인으로서 국가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바탕이 된다.

5. 妻妾간의 질서

- 아내와 첩 사이는 공순하기를 정성으로 지극히 하고, 아내는 사랑하기를 진실로 하여 트집잡지

말 것이니 다만 각각 지아비 마음 어기지 말기를 정성으로 하면 어찌 잘못된 일이 있으리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妻와 妾의 관계를 예로 좇은 恭順해야 하고 妻는 慈愛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 妻妾은 지아비의 마음 어기지 말기를 정성으로 하라고 한 것은 지어미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듯이 보이며 전적으로 현 시대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나 오늘날 가정의 기능 중 중요시 되는 정서적 안정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진실된 배려라는 점에서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

6. 長幼의 질서

- 한 집안 사람이 앉아서 일하다가도 나의 윗사람이 오면 일어설 것이니 항상 조심하여 매사를 공순하기를 법칙으로 삼을 것이다.

행동거지에 있어서도 앉아서 일을 하다가도 어른이 지나가면 곧 일어서서 禮를 표할 것을 강조하여 윗사람에 대한 恭敬함을 교육시켰다.

7. 친척관계와 尊卑 질서

- 한 집안 안에서 삼촌은 아버이를 섬기는 예로 하고, 사촌은 친형제를 대하는 예로 하여, 서로 사랑하여 한몸같이 할 것이니 모두 몸 가지기를 공순히 하며 말거리로 삼지 말고 따뜻하고 평안함(溫情)으로 가르쳐 듣지 않거든 가장에게 말하여 젊은 사람이 내 종이라도 손 가볍게 때리지 말고 가장께 말할 것이다.

叔父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섬기는 禮節으로써 하라고 했다. “형제는 부모 몸에서 난된 것이니 한 몸이나 다름없다”(『同居戒辭』)라고 밝힌 바와 같이 叔父는 또한 아버지와 형제이므로 한 몸으로 여기라는 것이다.

오늘날 친척간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 지고 있는 것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귀결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즉 친척이란 나와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한 몸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척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8. 총론 : 화목의 윤리

- 한 집안 사람이 다 화목하여 마음이 화평하면 집안이 어질고 길한 일이 모여들고, 서로 언짢아 하여 거스린 일이 있으면 사나운 기운이 나니 그 아니 두려우랴. 우리는 진실로 서로 모여 아버이는 자식 사랑하고, 자식은 아버지께 효도하며, 지아비는 아내를 중히 여기고, 아내는 지아비를 공경하며,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고마워하며, 아내는 첩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첩은 아내를 고마워하며, 아랫사람은 윗 사람을 정성으로 대접하고, 윗 사람은 아랫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여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조용히 가르치고 서로 언짢게 하지말라. 어진 일이면 서로 다투어 하고, 언짢은 일은 서로 참으며, 가장은 종을 어엿비 여기고, 종은 가장을 공경하고 사랑하여 언짢은 말과 언짢은 얼굴 하지 말며, 한 집안 안에 늘 和善의 기운이 있음에 어진 귀한 기운이 집안에 항상 좋은 일이 있게 되리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모름직이 이 뜻을 알아서 스스로 힘쓸지어다.

栗谷은 聖學輯要에서 朱子의 말을 인용하여 가족을 가르치는 데는 孝道와 恭敬과 慈愛를 들어 설명했으며 마음이 정성스럽지 않으면 몸을 바르게 할 수가 없으며, 家庭이 和睦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다스려 질 수가 없다고 하였다.

효도, 공경, 자애는 자기 자신을 먼저 수양하여 집안에서 가족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 사람이 임금을 섬기고, 웃어른을 섬기며, 여러 사람을 부리는 길은 이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집안은 위에서 다스려지고 가르침은 아래에서 이룩된다는 이유이다(栗谷全書, 卷 23 聖學輯要 5, 正家, 總論正家章).

즉, 孝라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길이요, 悌라는 것은 어른을 섬기는 길이며, 慈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부리는 길이라고 하였는 바 『同居戒辭』의 마지막 부분에는 孝·悌·慈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화목의 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을 우리로 생각하는 집단적인 자아의식을 가졌지만 현대인은 개인을 자아로 의식하는 개인적 자아의식이 압도적이다. 오늘의 추세대로 방치해 둔다면 가정은 점차 파괴되는 방향으로 흐름 염려가 있다(김태길, 1991 : 122~123) 따라서 위와 같은 화목의 윤리를 우리의 실생활에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개인적 자아가 하나의 “우리”로 승화하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성립될 것이다.

가족간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 가족은 서로 마음을 좋으나 싫으나 언짢게 여기지 말 것
- 얼굴빛을 온화하게 할 것
- 말을 부드럽게 하여 가르치되 닳하지 말 것
- 서로 논란하지 말 것
- 남의 말을 끝이 듣지 말 것
- 이간질하여 서로 언짢게 하는 일이 없게 할 것
- 종이나 침의 잘못됨은 엄히 가르치고, 경계해야 할 것
- 같이 살면서 사사로운 물건에 욕심 내지 말 것
-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조용히 타일러서 성내지 말 것
- 착한 일은 본받는 것
- 불만스러운 일은 서로 참는 것

이상의 내용을 보면, 栗谷이 家道를 바로 잡고 가족원의 倫理敎育과 人間形成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존재가치보다 자신이 속한 문종과 家系속의 서열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되는 경향이 보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독립된 존재로 있기보다는 집단 속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함이 유리했을 것이다(유혜영, 1993).

이상의 전체적인 내용은 가정내에서의 효도, 공경, 공순, 사랑, 정성을 바탕으로 倫理를 이야기했고, 또한 한 집안의 和平을 위해서 가족원 각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處身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 당시 栗谷의 가정은 親族共同體와 같아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다보면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간에 不便과 不滿이 없을 수 없다. 그렇기에 함께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을 이해하고 참으며 나를 극복해 나가는 克己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訓戒가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栗谷은 그의 思想의 중요한 개념인 敬과 誠을 바탕으로 家庭倫理를 실생활에서 실천하면서 親族共同體를 이끌어 나갔던 것이다.

『同居戒辭』의 주된 사상인 敬과 誠은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에서 강조되는 가정 화목의 윤리 또한 성실한 태도로 비롯되는 가족간의 신뢰가 가정화목을 가져 오리라고 생각한다.

栗谷이 가정의 화목을 갈망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실은 朴世采의 <南溪集>에 전하는 “記栗谷先生入山時事”(1694. 4. 21. 기록)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洪 달아기, 1993 : 22 번 역문참조).

栗谷의 家庭에 庶母 權氏가 들어온 이후에 패악함이 심하여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목매어서 죽으려하여 집사람들이 달려가 구하여 그치게 하였고, 또 서모와 큰 형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선생이 두 사람 사이의 화합을 주선하고 事理로 간하길 힘껏 다하였으나 끝내 되지 않자 마침내 아버지에게 그 일을 울며 아뢰었고, 어느 날 책갑을 달아두고 떠났는데, 그 속에 아버지, 형, 서모 앞으로 세 통의 편지가 있었고 그 내용 중에는 “언제까지도 이같이 화목해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어버릴 망정 어떻게 산다 하오 리까” 하는 간곡한 말까지 있었다 한다.

위의 글을 참고로 볼 때 栗谷은 가족간의 불화를 경험하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栗谷이 친척들과 동거하려고 했을 때에 가족간의 불화를 염려하여, 함께 살며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가족간의 도리를 모두가 알기 쉽게 한글로 써서,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낭독하는 일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였다는 것은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家庭에서의 일상적인 敎育을 중시하여 生活化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栗谷이 주장했던 학문의 내용을 실제 생활에 適用하였음을 말해준다.

IV. 결 론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가족이 화목하고 가문이 번창하는 것을 최대의 보람으로 생각하고(고영복, 1994) 있으나 현대사회의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상실과 소외의 이방지대로 전락하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그들은 좌절과 고독의 심연으로 몰아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화목한 가정』을 회구한다. 『화목한 가정』 그것은 오늘의 청소년 문제를 풀어 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천가능한 목표이다(강대근, 1994).

가정의 화목은 가족간의 신뢰형성을 가져오며 각 가족원간의 신뢰는 모든 가정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栗谷은 그의 많은 저술을 통하여 가정의 화목이 나아가 사회나 국가의 평안에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특히 『同居戒辭』라는 짧은 저술은 和樂을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생활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했던 저술이다.

가정의 화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고찰해 본 결과 효도, 공경, 공순, 사랑, 정성을 바탕으로 하였다.

첫째는 공경과 공순이다. 제사를 모실때의 마음가짐이나 아버지를 섬기는 것, 윗 사람에 대한 태도 등에서 강조되었다.

둘째 효도이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孝는 단순한 孝가 아니라 진실됨(誠)을 바탕으로 해야하며 특히 부모에 대한 孝敬의 禮를 엄격히 하므로써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연결되어 확대된다고 보았다.

세째 사랑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 부모가 자식에 대해, 형제간에, 妻妾간에, 친척간에 대해 慈愛를 강조했다.

즉 형제란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 이해타산을 갖지 말고 진실로 사랑해야 한다. 특히 삼촌이나 숙모에 대해서는 부모섬기는 예절로 해야하며 사촌형제는 친형제와 똑같이 해야한다고 했다.

네째 정성이다. 제사규범이나 孝의 기본에서 강조되는 규범이지만 가족원간의 신뢰를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총론적인 화목의 윤리에는

정성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바탕이 되어있다.

이와 같이 栗谷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 구체적인 생활방침을 만들어 매일 초하루에 온 식솔들을 모여 놓고 읽게 하였듯이 오늘날 각 가정에서도 栗谷과 같은 적극적인 실천방법을 고려한다면 여러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김태길(1991: 123)은 가정을 오늘의 추세로 방치해 둔다면 점차 파괴되는 방향으로 흐름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知性的 努力으로써 현대에 적합한 가족제도와 가족윤리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가장 친밀한 사람끼리 모여사는 집단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점이 있으므로 올바른 생활지침을 정해놓고 실천하고 반복교육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위와 같은 규범들은 가정내에서 생활화하여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확대시켜서 사회의 규범으로 승화시키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정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겠지만 가족의 화목에 대한 갈망과 가족간의 관계라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전통의 윤리는 우리의 정서적 사회규범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발전과 변화라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무시되지 않도록 재해석하고 현대의 생활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강대근(1994). 미래의 주인 청소년과 가정. 열린사회와 가족, 여성개발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2) 고영복(1994).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가족상. 열린사회와 가족.
- 3) 김태길 外(1991). 現代社會와 倫理, 博英社.
- 4) 김익수(1979). 韓國의 孝思想, 서문문고 261 서문당.
- 5) 김종권 편저(1988). 名家의 家訓, 명문당.
- 6) 『南溪 朴世采 文集』(1964). 續集 卷 20.
- 7) 배용광(1991). 동서양 규범문화의 변화.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정신문화연구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8) 孫仁銖(1982). 栗谷의 教育思想. 박영문고 195, 박영사.
- 9) 孫仁銖(1988). 申師任堂의 生涯와 教訓. 박영문고 120, 박영사.

- 10) 孫仁銖(1991). 韓國人의 家庭教育. 문음사.
- 11) 孫仁銖(1981). 韓國人의 傳統의 教育意識과 現代教育의 諸問題.
- 12) 『栗谷全書』1(199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13) 『栗谷全書』2(199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14) 『栗谷集』(1977). 고전국역총서 22, 민족문화추진회.
- 15) 『栗谷集』(1977). 고전국역총서 23, 민족문화추진회.
- 16) 尹明老(1985). 傳統의 家庭倫理教育. 정신문화연구, 가을호.
- 17) 이길표(1994). 朝鮮朝 規範書에 나타난 家庭規範教育의 內容과 特徵.
- 18) 李完載(1986). 朝鮮時代 倫理觀의 肯定的 側面. 정
신문화연구, 여름호.
- 19) 李丙燾(1979). 栗谷의 生涯와 藝術. 성문각.
- 20) 이은상(1978). 師任堂과 栗谷. 성문각.
- 21) 이은상(1978). 師任堂의 生涯와 藝術. 성문각.
- 22) 林禧燮(1988). 社會變動과 價値觀. 정음사.
- 23) 유혜경(1993). 韓國人의 傳統家庭教育史上.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3-18.
- 24) 崔在錫(1989). 韓國家族制度史 研究. 一志社.
- 25) 『韓國文學』(1976). 제 4 권, 통권 28호.
- 26) 洪 달아기(1993). 栗谷의 家庭教育觀 研究. 誠信女
子大學院 博士學位論文.